

밤을 깨우는 시간여행, 군산에서 만나다

군산 시간여행마을을 중심으로 야간관광 명소화 추진

전망타워·푸드 트레일러 명소 등 4대 관광 인프라 조성

군산시가 ‘밤(夜)을 깨우는 시간여행’을 테마로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는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망타워(전망등대) 조성’ 등 4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산시간 여행마을을 중심으로 밤(夜)을 깨우는 야간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대문화유산을 관광소재로 조성된 ‘군산시간여행마을’은 근대역사 박물관,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 여행 축제 등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 200만 명을 들

파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했지만, 야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전망타워(조망 등대) 조성 ▲군산항역 복원 및 철도테마공원 조성 ▲근대역사박물관 야간개장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푸드트레일러 명소 조성 등 4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망타워(조망등대) 조성사업은 장미동 내항에 100억원을 투입해 내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30m높이의 전망타워(등대)를 조성하고, 야간 라이트쇼를 위한 서

치라이트 및 디지털 영상시설 등을 설치하게 된다.

군산항역 복원 및 철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근대역사박물관 뒤 철도부지를 활용해 군산항역을 복원하는 한편 살수터 역사고증 현장과 철도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이다.

근대역사박물관 야간개장과 이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사업은 야간 관광인프라 확충과 야간행사 개최 및 거리공연으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근대역사박물관의 입장권 및 주차권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교환해 침체한 전통시장을 살리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에만 박물관 수입으로 예상되는 12억원이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교환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드 트레일러 야간관광 명소 조성 사업은 백년광장 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푸드트럭 존(ZONE)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대 규모의 푸드트럭 존을 만들어 야간관광객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이색 디자인 및 매뉴투어를 통해 젊은 이들의 관광데이트 코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중심으로 야간관광을 활성화해 관광명소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면서 “특히 고군산연결도로 및 동백대교 개통에 맞춰 반드시 연간 300만명 관광객 방문 시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기자 노트

엄마! 가지마라 더 있다 같이가자

한 선장의 가슴에서 우리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 진이동(56·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선장은 지난 21일 새벽 중국어선 단속 업무 중 해수부의 긴급 호출을 받았다.



이 상 선
사회2부 기자

진 선장은 세월호 인양을 앞둔 이날 미수습자 가족을 태워 인양현장 인근에 머무는 임무를 맡았다.

진 선장은 인양현장 인근 1.7km까지 근접해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의 인양 현장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지난 8일 동안 중국어선 단속을 해오던 터라 진 선장과 선원들은 지혈대까지 지쳐 있었지만, 세월호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미수습자 가족 앞에서는 힘을 내색조차 할 수 없었다.

국민 대참사 3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인양은 멀리하고 보상으로만 유가족을 위로하려 했던 정부의 행태에 유가족들은 이제 분노의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바짝 마른 표정으로 세월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진 선장의 항해는 세월호가 인양된 25일까지 3박 4일동안 이어졌다.

좁디 좁은 무궁화 2호라는 배 안에서 70시간 넘게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해온 진 선장은 땀과 눈물로 귀환하는 25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진 선장은 귀환하던 이날 미수습자 가족에게 전신을 담아 “우리 아이들이 우나봅니다. 가지

마라 더 있다 같이 가지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진 선장의 말 한마디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과 울음을 다시 쏟아내고 말았다. 진 선장도 울고, 선원들도 울고, 하늘도 울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진 선장님은) 너무나 고마운 분이였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관계자들의 그 어떠한 위로와 격려도 반갑지 않았는데, 70시간 넘게 고통을 함께해온 진 선장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진실을 담은 따뜻한 마음이 “그 어떤 분노나 성난 민심도 달랠 수 있다”는 것을 진 선장이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진 선장의 사례를 교훈 삼아 참사 때마다 보상이라는 돈만을 앞세워 해결하려한 비윤리적인 대책 행태를 지금까지도 반성하고, 진실을 담은 대책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창작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공연

내달 11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장성문화예술회관이 4월 기획 공연으로 웃음과 감동이 섞인 있는 뮤지컬을 선사한다.

장성문화예술회관은 “내달 11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며 일상속의 행복을 찾아가는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를 공연한다”고 28일 밝혔다.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만나 조건없는 사랑과 행복을 발견하는 이야기로 탄탄한 스토리와 음악이 힘입어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창작뮤지컬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콘서트를 즐기는 컨셉으로 제작된 뮤지컬로 역동적인 동작들과 신나는 음악이 많아 관객들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청량음료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연예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http://culture.jangseong.go.kr>)과 전화(061-390-8475, 390-8476)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3000원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문화가 있는 날’

창작 연희 공연

오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이달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창작 연희(演戲)를 선보인다.

극단 ‘유희(YOU·喜) 컴퍼니’는 29일 오후 정읍시 덕전면 소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전통의 소리와 장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연희를 무대에 올린다.

연희는 말과 동작으로 관객과 호흡하는 전통적인 공연의 한 형태다.

이번 공연은 전통에서 벗어나 신나고 재미있는 가무악(歌舞樂)으로 엮은 비나리와 사물·풍물놀이가 펼쳐진다.

동학혁명재단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라는 주제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음악·무용·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무료다.

올 상반기 출연단체와 공연은 ▲4월 26일 정읍시립농악단의 농악 공연 ▲5월 31일 ‘아름드리’의 색소폰 연주회 ▲6월 28일 정읍시립국악단 음악극 ‘환생’ 등이 예정돼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동학혁명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를 참조하거나 동학혁명재단 연구조사부(063-536-189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작아도 맛은 일품”...고창군 작은 수박 재배 확대



박우정(가운데) 고창군수가 최근 ‘작은 수박 육성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고창군 제공〉

블랙망고 수박 등 집중 홍보

전국 최대의 수박 주산지인 전북 고창군이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크기가 작은 ‘소과종(小果種) 수박’ 재배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소과종인 ‘블랙망고 수박’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으며, 올해부터는 핵가족 시대의 소비자 입맛에 따라 소과종 재배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블랙망고 수박’은 지난해 28개 농가가 9ha에 재배했으며, 올해는 39개 농가, 13ha로 증가했다.

이 수박은 겉은 검고 속은 노란색이며 무게는 3kg 정도다.

이 품종은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으로 당도가 높은데다, 수박껍질도 얇고 단단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으며 출하 시기에 맞춰 소과종 수박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소과종 수박 판매 결과를 토대로 재배면적을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며 “고창 수박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과종 수박의 명품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 택 / 투 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먼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 지 / 투 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아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아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아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 준 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원도군 약산면 득암리 팬션·사찰·도인요양시설 등 적합 장기투자 에 최적 땅 7416㎡ 바닷가임 1억4천
- 담양군 금성면 경관좋은 9710㎡ 전원주택 단지적합 9억2천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길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좋은 11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바다 전망좋은 1억4500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좋은 남향땅 2738㎡ 매도 2억8백

투자 · 매도 · 교환

- 장성군 장흥읍 공업지역 2390㎡ 투자에 좋음 85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원
- 원도군 군외면 삼두리 전 5820㎡ 1억2천, 1965㎡ 3천6백
- 대인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무안군 무안읍 전 5293㎡ 농장 전원생활용 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북송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원

상가건물

- 서구 화정동 다세대 8세대 대지 289㎡ 건평 311㎡ 전세 2억원 교환가능 3억천
- 서구 교통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등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나면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충장로5가 도로점 대지 265㎡ 건평 995㎡ 매도 11억원
- 남구 주월동 대지 1354㎡ 6층건물 4873㎡ 요양병원 250매드 적합 도로나 건물위치 좋음 법인이전함 은행 33억 매도 55억
- 월산동 농성초교나면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원림동 중심상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유동 원림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안집은 공실임. 은행 2억원 보증금 9300 월 350선 3년전 건물 매도 6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 방3, 거실1, 전망좋은
- 2012년 신축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 즉시입주가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